

부농 꿈 안고 귀농했는데... 현실은 '빚 허덕' 소작농

영화 '미나리'로 본 전남 귀농가구 분투기

2019년 귀농 1242가구 중 43.4% '임차농'
79.1% 0.5ha 미만 경작...3명 중 1명 '투잡'
열악한 정주 여건에 75.2% '나홀로 귀농'

지난 3일 개봉하자마자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미나리'는 미국 이민자 1세대 가족의 귀농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캘리포니아 도심에서 아무 연구도 없는 아칸소주(州)로 옮겨 농사를 시작한 제이콥(스티븐 연 분)네 가족의 이야기는 못 귀농가구의 고단한 삶과 닮아 있다.

4인 가구의 가장 제이콥은 50에이커(1ac=4050㎡) 규모 채소농장을 꾸릴 꿈이 있지만, 현실은 대출을 받아 '바퀴 달린 집'을 겨우 구한 소작농이다.

부푼 꿈을 안고 농도(農道) 전남에 터를 잡은 귀농가구 1242가구(2019년 기준·통계청) 가운데 43.4%(539가구)는 임차농이다.

귀농가구 임차농 비율은 지난 2017년 41.1%, 2018년 42.0%, 2019년 43.4% 등 매년 오르고 있다.

'6만평 채소농장 꿈' 제이콥의 현실

캘리포니아 도심서 연구 없는 아칸소주로 이사

빛 얻어 산 '바퀴 달린 집' 서네 식구 생활

병아리 감별사로 '투잡' 하며 대출금 갚기

아이는 아프고 편의시설 없고 이산가족 위기

전남 귀농가구의 79.1%는 면적 0.5ha 미만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다. 0.5~1.0ha 미만이 15.6%로 뒤를 이었고, 1.0~2.0ha 미만은 4.2%, 2.0ha 이상은 1.0%에 그쳤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제이콥은 빚으로 버티며 농업을 잇는 동시에 병아리 부화장에서 감별사로 일하며 대출금을 갚고 있다.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귀농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다.

전남 귀농인의 3명 중 1명 꼴(30.2%)로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귀농인 겸업 비율은 28.0%(2017년)→29.6%(2018년)→30.2%(2019년) 2년 연속 오름세다.

가장(家長) 세대인 40대 겸업 비율이 39.4%로 가장 높고, 30대 이하 35.7%, 50대 34.4%, 60대 23.1%, 70대 이상 9.9% 순이다.

작품에서는 농촌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주인공 가족이 흩어질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온다. 아이의 심장 질환이 온 가족을 괴롭히고, 문화와 소망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2019년 전남 귀농가구

75.2%는 '나홀로 귀농'을 선택했다. 1인 가구가 75.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6.0%), 3인 가구(5.1%) 순으로 나타났다. 작품 속 주인공처럼 4인 가구 이상 비율은 3.7%에 머물렀다.

전남 1인 귀농가구 비율은 61.5%(2015년)→66.1%(2016년)→68.4%(2017년)→71.2%(2018년)→75.2%(2019년) 매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도 지난 2018년 1.46명에서 이듬해 1.38명으로 줄었다.

전남 평균 농업소득은 2년 연속 줄고 있는데 농가부채는 2년째 늘고 있다. 전남 농가는 농업을 통

해 한 해 동안 1208만원(2017년)→1190만원(2018년)→884만원(2019년)으로 감소하며 7년 만에 농업소득 80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반면 농가부채는 지난 2019년 기준 2681만원으로, 전년보다 10.2%(247만원) 증가했다. 농업인들의 빚은 지난 2017년 2247만원, 2018년 2433만원, 2019년 2681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농민에게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자연재해이다. 주인공 역시 살얼을 위를 걷는 것처럼 농장을 돌보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에는 속수무책이다.

전남 재해보험 가입률은 반타작(2020년 58.6%) 수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입 추세는 더디기만 하다. 농민들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순보험료율과 보험료 할증 형평성, 손해평가 전문성 문제 때문에 선뜻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품목별로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 격차가 큰 지역을 살펴보니, 고흥지역 공품목에 대한 순보험료율은 29.42%인 반면, 경북 영천은 2.56%로 10배 넘는 격차가 났다. 장성 옥수수 순보험료율(17.54%)과 전북 완주(2.05%) 요율은 15.49%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헤이 카카오"

삼성전자-카카오엔터 협력

세탁기·건조기 등 AI 기능 강화

삼성전자는 4월 카카오프라이즈와 스마트 홈 사업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 가전 제품은 카카오프라이즈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i(아이)'와 연동돼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카카오 i'가 탑재된 '헤이카카오'와 '카카오홈'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스피커인 '카카오미니', '미니렉사', '미니링크' 등을 통해 삼성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가전 제품을 작동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헤이 카카오, '건조기 AI 맞춤' 코스 실행해줘' 등 음성 명령을 내리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챗봇 대화를 통해 가전 제품을 작동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i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4가지이며, 올 상반기 에어컨, 에어드레서, 식기세척기 등 지원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 소비자들은 한층 편리한 스마트 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사가 쌓아 온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와 카카오프라이즈 스마트 스피커 '미니렉사', '미니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수출지원 가이드북 나와

광주·전남중기청 무료 배포

광주·전남지역 수출지원기관의 모든 수출지원 사업을 담은 '수출지원 가이드북'이 나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 29개의 수출유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184개의 수출지원 사업을 모두 수록한 '한눈에 보는 총망라 수출지원 가이드'를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 가이드북은 기획과 마케팅, 이행 등 3단계로 나뉘어 수록해 기업들의 효율적인 정보탐색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지원정책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웹사이트와 사업별 담당부서 연락처를 일일이 수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비대면 서비스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이문범 광주전남중기청 수출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로는 수출지원 사업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책자를 발간했다"며 "중소기업 수출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펼쳐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광주서 개발된 게임 인기 '아일랜드M'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50만회 돌파

광주 게임 개발사의 신제품이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50만회를 돌파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7년 광주로 유치한 '플렉시마인드'의 모바일 게임 '아일랜드M'이 지난 1월 출시된 뒤 50만회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게임은 지난 1월1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출시 이틀 만에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일랜드M'은 광주글로벌게임센터 히스토리프로

젝트, 창업도약패키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지난해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와 이에스인베스터(주) 등의 창업투자사로부터 8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43.49 (-39.50)
↓ 코스닥	926.20 (-4.60)
↑ 금리(국고채 3년)	1.030 (+0.011)
↑ 환율(USD)	1125.10 (+4.80)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